

무안군의회는 집행부 요구 다 들어주는 거수기?

‘생색내기용 사업’ 추경안 원안대로 가결

“벌써부터 지방선거 票의식하나” 비난도

무안군 의회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선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의회는 최근 제209회 임시 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안군이 상장한 전통시장부지 매입 공유재산, 군 관리계획용도 지역변경, 가축사육 제한 등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안군의 2013년 예산 액은 당초 3572억 6300만원보다 114 억 2900만원이 늘어난 3686억 9200만원이 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452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4억 66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주요 사업은 지역개발 41억원, 문화관광 27억원,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체육시설기반사업비 등 생생내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의원들이 집행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군 공유재산과 관련해 전통시장부지 시설 현대화사업 부지에 추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시설을 3 차례나 변경하면서 특정인 토지가 사업부지에서 빠지고 도로 3면이 새로 생겨 수십억원의 특혜 시비에 휘말리

는 과정에도 아무런 제안과 제재를 하지 않았다.

또 군이 내년 전남도민체전을 위해 스포츠파크 2차 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에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종합운동장 일부 시설을 포함했으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어긴 감독 공무원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이번에 원안 가결해 의원들의 자질이 도마위에 올랐다.

반면 자신들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월 3만원이던 참전유공자 지원금을 4만원으로 인상해 생생내는 일

예만 앞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무안군 연합청년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외면한 채 내년 선거에서 누구에게 줄을 살까만 고민하고 있다”며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들은 지역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3선 1명, 재선 3명, 초선 및 비례 1명과 지난해 사기 및 법정위증죄로 의원직을 상실해 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민어 전정’ 주문 쇄도

〈마른 민어〉

‘향토자원 경연대회 베스트30선’ 대상 인기 폭발

대량 생산·판매 어려워 예약해도 내년 1월 배송



민어 전정

마른 민어인 ‘전정〈사진〉’ 민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안전행정부 등이 주관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우리 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 베스트 30선’ 가운데 전정 민어(해풍전정)가 영예의 대상을 받은 이후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전정 민어는 민어를 말린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도감인 자산어보에서는 민어중에서도 최고로 끊겼다.

대상 수상 이후 신안군과 경정을 만드는 중도면 장고마을, 경정을 짓고 손질한 후 천일염을 이용, 절임을 하고 사방이 트인 장에서 장대에 매달아 해풍에 40일간 말린다. 이렇게 만든 경정은 보통 물에 살짝 불려 양념을 해 구워 먹고 찜으로 만드는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요즘에는 만드는 사람이 많지 않아 구하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민어포가 육포보다 맛이 좋아 인기를 끌었다”며 “사람(人)의 염(鹽)·햇빛(光)·바다(海)·바람(風)을 품지 않고서는 완성되지 않는 경정은 명품 중의 명품이다”고 자랑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피아골 관광객 입맛 확잡은 구례 ‘쑥부쟁이 비빔밥’

귀농 방희정씨 ‘무료시식회’ 3000여명 돌려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단풍축제장에서 ‘쑥부쟁이 비빔밥’ 무료 시식회가 열려 단풍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구례군은 지리산 단풍이 절정에 이른 지난 2일과 3일 구례군 피아골단풍축제 행사장에서 쑥부쟁이 비빔밥 무료 시식회(사진)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쑥부쟁이 비빔밥 무료 시식회는 지난 2010년 고향인 구례로 귀농한 방희정씨(55)가 마련했다.

무료 시식회가 열린 임시천막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이를동안 3000여명이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쑥부쟁이 비빔밥을 즐겼다. 방씨는 지역민, 귀농귀촌인 10여명과 함께 ‘지리산나물 힐링협동조합’을 결성해 쑥부쟁이 등 다양한 산나물을 재배하고 있다.

쑥부쟁이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로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말려서 약재로도 사용하며 달여서 먹거나

짓찧은 생즙을 먹기도 한다. 인체의 열을 내리고 해독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희정씨는 “쑥부쟁이는 현대인에게 부족한 칼슘과 칼분을 보충해주고 과인 섭취한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장수 헬링식품”이라며 “관내 쑥부쟁이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리산나물을 활용한 구례의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해 사전에 시식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관광객 김모씨(여·54·경기도 인천시)는 “자연의 향을 머금어 쑥쌀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라고 말했다.

구례군은 2011년부터 지리산나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오고 있다. 특히 쑥부쟁이 재배단지를 조성해 우수종 선발, 가공법 개발, 흥보마케팅 지원 등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소득작목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khk@



섬 학생들의 깜찍한 끼·재능 발산

신안교육청, 방과후 학교 에듀-페스티벌 개최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형)은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해 최근 흑산지역을 시작으로 방과후학교 에듀-페스티벌을 시작했다.

신안 섬 학생들은 지리적 한계로 인해 문화적인 혜택이나 공연 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교육청은 이에 따라 방과후

학교 에듀-페스티벌을 9개 권역별로 나눠 개최하고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표현으로 표현하게 할 방침이다.

신안 방과후학교 에듀-페스티벌은 꿈·창의·실력 구현을 위해 5일 자도, 15일·21일 장산, 26일 하의, 27일 신의, 28일 압해, 29일 안좌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듀-페스티벌에서는 연주, 합창, 무용,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 미술작품, 학습소산물이 전시됐다.(사진)

특히 관악부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지원으로 흑산 학생들이 플룻, 드럼, 기타, 호른 등을 연주해 눈길을 모았다.

신안 방과후학교 에듀-페스티벌은 꿈·창의·실력 구현을 위해 5일 자도, 15일·21일 장산, 26일 하의, 27일 신의, 28일 압해, 29일 안좌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목포 洞마다 1곳씩 ‘작은도서관’ 건립 척척

목포시의 1동 1개소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다.

시는 최근 부주동 주민센터 내에 ‘푸른솔 작은 도서관’ 문을 열었다.

1900여 권의 책과 회원증 자동발급기, 책 소독기 등이 비치됐다.

시내에는 현재 산정동 ‘피터팬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꿈돌이(하당동), 응달샘(상동), 무지개(연산동) 작은 도서관 등 총 10개소가 문을 열었다.

다음달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부영 작은 도서관’이 11번째로 개관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광양시 ‘스마트 오피스’ 이달부터 서비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첫 구축사업 완료

IT기술 활용 지식정보화사회 가치 창출

광양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모바일 기반 ‘스마트 오피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스마트 오피스란 IT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화사회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시공간의 제약 극복과 일처리 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사무환경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사업비 2억 3200만원으로 사무실 외 자택, 출장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긴급한 행정·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과 종이 없는 회의 문화 정착과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 전자화의 시스템을 구축

했다.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전자정부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해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각종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사업비를 절감했다.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은 그동안 개인용 컴퓨터(PC)로만 가능했던 행정업무를 스마트폰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비스 범위는 새울행정(복무관리, 공지사항, 민원처리 간수 등) 시스템 및 온나라(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취급했던 업무중 자택 또는 출장시에 서비스가 가능한 총 6개 단위 22개 항목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
조선